DBpia

〈射琴匣〉 이야기의 수용 양상과 서술 태도

저자
(Authors)

전성운

출처
(Source)

한국민속학 31, 1999.12, 171-192 (22 pages)
The Korean Folklore 31, 1999.12, 171-192 (22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민속학회
The Korean Folklore Socie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801199

APA Style

전성운 (1999). 〈射琴匣〉 이야기의 수용 양상과 서술 태도. 한국민속학, 31, 171-19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22 16:2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射琴匣〉 이야기의 수용 양상과 서술 태도

전성운*

1. 머리말

한 구비서사물의 다양한 수용 양상을 살핌으로써, 그 서사물의 수용과 변이가 지니는 의미를 밝히는 작업은 쉽지 않다. 그것은 중력에 의해 일그러지는 공간에서 존재의 時空點을 밝혀내는 것이 간단치 않음과 같다. 중력에 의해서 시공의 좌표는 일그러지고, 시공점의 변화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가 된다. 또 시간과 공간의 만남도 단순한 직선적 교차가 아니고 곡선을 그리게 된다. 때문에 존재의 시공점을 찾아내는 작업은 결코 단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한 서사물의 수용과 변이에 있어서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즉 서사물의 변화와 수용에는 창조적 작가의 개성, 시대적 배경, 이데올로기적 갈등, 서사문학의 정신사적 轉變 등 여러 변인들이 개입하여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밝히기란 쉬운 것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서사물의 수용과 변이를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서사 문학의 변화 양상을 이해하는 指標로 작용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통시적 관점에서 볼 때, 敍事物 各篇(Version)은 일정한 변이를 보이면서 수용된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라기보다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이

* 배재대학교 강사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2 16:20(KST)

며, 그 의미는 일반적 서사물의 변이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특정한 서사물 각편의 수용 과정에서 보이는 서술태도와 그 의미를 살핌으로써 시대적 산물로서 서사물 일반의 존재적 의미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사금갑> 이야기를 대상으로 하여 수용과 변이의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이 이야기는 『三國遺事』,[1] 『慵齋叢話』,[2] 『紀聞叢話』,[3] 『東京雜記』,[4] 『韓國口碑文學大系』[5] 등의 문헌에 收載되어 있으며, 각편은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우선 이들 다섯 종의 문헌에 수용되어 있는 각편들의 특징적 면모는 무엇이고, 그 특징이 내포하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비, 국문, 한문으로 전하는 서사물의 변화와 그 의미를 일부나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고찰은 폭넓은 자료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자칫 개개의 사실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그것들의 의미를 針小棒大함으로써 작품의 실상을 왜곡하거나, 수용과 변이의 양상을 통해 볼 수 있는 서술 태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愚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굳이 한 서사물의 변이와 그 의미를 따지려는 것은, 서사물의 轉變이 갖는 시대적 의미의 중요성에 비해 기존 논의가 너무 疏略하기 때문이다.

---

1) 일연 저, 최남선 편, 『삼국유사』, 서문문화사, 1987.
2) 성현, 『용재총화』, 『국역 대동야승』 I, 민족문화추진회, 1973.
3) 정명기 편, 『기문총화』, 『한국야담자료집』 6, 계명문화사, 1987.
4) 최남선 편, 『동경잡지 전』, 조선광문회, 대정2년(1913).
5)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전하는 <사금갑> 이야기는 대략 4편이다. 본고에서는 기본적 서사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흥미있는 변화 양상을 보이는 『한국구비문학대계』 5-4 <정월 대보름 오곡밥의 유래>(최운택, 남 57)의 구술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박순호, 『한국구비문학대계』 5-4, 정신문화연구원, 1983, 1076~1080면).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2 16:20(KST)

2. 〈사금갑〉 이야기의 수용과 서술 태도

〈사금갑〉 이야기를 收載하고 있는 각종 문헌의 기록은 字句의 출입과 같은 단순한 변화뿐만 아니라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차이가 보인다는 것은 각 문헌에 〈사금갑〉 이야기의 수록 태도, 즉 서술 태도에서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때문에 여기서는 우선 각 문헌이 지닌 수용상의 특징과 그 서술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논의의 단서를 마련하기로 한다.

『삼국유사』에서는 〈사금갑〉 이야기를 비교적 자세하고 정확하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록하고자 하는 서술 태도를 볼 수 있다. 무엇하나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의 全貌를 서술하는 태도는 『삼국유사』에 收載된 〈사금갑〉 이야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다음의 인용을 보기로 한다.

> 제 21대 毗處王(炤智王이라고도 함.) 즉위 10년(488년) 戊辰年에 왕은 天泉亭으로 행차하였다. 그 때 까마귀와 쥐가 나타나 울어대더니 쥐가 사람의 말로 이르기를 이 까마귀가 날아가는 곳을 찾아 보아라.(혹자는 말하기를 神德王이 興輪寺에 行香하기 위해 길을 가다가 여러 마리 쥐들이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을 보고 괴상히 여겨 돌아와 점을 치니, 내일 먼저 우는 새를 찾아라 云云 했다하나 이것은 잘못된 것임.) 왕은 騎士를 시켜 까마귀가 날아가는 곳으로 가보게 했다. 남쪽 避村에(지금의 壤避寺村이니 남산의 동쪽 기슭에 있음.) 이르자 두 마리의 멧돼지가 싸우고 있는 것을 머물러 보다가 그만 까마귀의 행방을 잃어 버렸다. 길 옆을 배회하고 있는데, 한 노인이 못 속에서 나타나 편지를 바쳤다. (第二十一毗處王(一作炤智王) 卽位十年戊辰 幸天泉亭 時有烏與鼠來鳴 鼠作人語云 此烏去處尋之(或云 神德王欲行香興輪寺 路見衆鼠含尾 怪之而還占之 明日先鳴烏尋之云云 此說非也) 王命騎士追之 南至避村(今南避寺村在東麓) 兩猪相鬪 留連見之 忽失烏所在 徘徊路傍 時老翁自池中出奉書.)[6]

6) 『삼국유사』 권제일, 〈사금갑〉, 54면.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2 16:20(KST)

一然(1206~1289)은 사건이 新羅 어느 왕 몇 년에 일어난 것이며, 어느 곳을 중심으로 사건이 발생했나를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다. 毗處王을 炤智王이라고도 稱한다는 것이나, 이 사건이 神德王이 興輪寺에 가려고 했을 때에 벌어졌던 것이라는 說은 잘못되었다는 내용의 註를 붙인 것도 이런 서술 방식과 동일한 특징이다. 이처럼 장황하게 꼼꼼한 주를 붙이는 것은 敍事의 자연적 전개 과정에 있어서는 어색하기 그지없다. 오히려 敍事物이 아닌 실재했던 歷史的 事實의 일부라고 받아들일 경우에만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렇게 역사적 사실, 실재했던 사건으로 <사금갑> 이야기를 기술하고자 하는 태도의 한편에는 일상적 경험의 세계와 어긋나는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다. 이런 내용은 사건을 實在했던 역사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힘들게 만들며, 실재 사건의 기술이란 서술 태도와 상반된 것처럼 보인다. 쥐와 까마귀가 울어대는데 쥐가 사람의 말을 하였다는 것이나, 까마귀가 사라진 연못에서 노인이 나와 편지를 바쳤다는 것, 편지의 내용이 왕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 등은 모두 일상적 경험 세계에서는 쉽게 발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들이다. 때문에 합리적이고 정확한 사건의 서술이란 시각에서 본다면 모순된 서술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모순된 서술 태도를 역사적 사실의 상징적 표현이나 허구화·설화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7] 다만 이런 상반된 특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명한 것은 <사금갑> 이야기를 서술하는 일연의 태도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건의 기술이라는 측면과 일상적 경험의 세계에서 본다면 불가능한 것도, 최대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서술 태도는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동일하다.

> 편지 겉봉에 씌어 있기를, 편지를 열어보면 두 사람이 죽을 것이요, 열어보

7) 이런 모순된 서술 태도가 내포한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보다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2 16:20(KST)

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 騎士는 편지를 가져와 바치니, 왕이 이르기를 두 사람이 죽는 것보다 열어보지 않아 한 사람만 죽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일관이 아뢰기를, "두 사람은 서민이요 한 사람은 왕입니다" 했다. 비처왕은 그럴 듯하여 하여 열어보니, 편지에는 '琴匣을 쏘아라'라고 씌어 있었다. 왕은 궁궐로 들어와 금갑을 보고 쏘니, 곧 내전 焚修僧과 宮主와 몰래 간통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죽임을 당했다. 그 때부터 나라 풍속에 매년 정월 달의 첫 亥日, 첫 子日, 첫 午日에는 백사를 삼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정월 보름날을 烏忌日이라 하여 찰밥으로 까마귀에게 제사를 지내주는 풍속이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다. 俗言으로 怛忉라고 하는데, 슬프고 근심스러워 백사를 금기한다는 뜻이다. 편지가 나온 그 못은 書出池라고 했다. (外面題云 開見二人死 不開一人死 使來獻之 王曰 與其二人死 莫若不開 但一人死耳 日官奏云 二人者庶民也 一人者王也 王然之開見 書中云射琴匣 王入宮見琴匣射之 乃內殿焚修僧 與宮主潛通而所奸也 二人伏誅 自爾國俗每正月上亥上子上午等日 忌愼百事 不敢動作 以十五日爲烏忌之日 以糯飯祭之 至今行之 俚言怛忉 言悲愁而禁忌百事也 名其池曰書出池.)[8]

간략하게 처리된 감이 없지 않지만, 琴匣에 활을 쏜 사건의 始末과 이로부터 유래된 正月의 민간 풍속, 대보름에 약밥을 지어 제사지내게 된 풍속의 유래, 書出池란 지명의 유래 등을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적고 있다. 이렇게 정월의 여러 풍속이나 약밥과 烏忌日의 유래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태도 또한 역사적 사건이 현실에 강한 영향을 끼친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최대한의 정보를 간략하고 조리 있게 서술하여, 앞서 살핀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건의 기술이란 서술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삼국유사』의 기록과는 달리, 성현의 『용재총화』에 수용된 〈사금갑〉 이야기는 사건의 구체적 실상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특기할만한 점으로는 편지를 얻게 되는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도입부가 현저하게 축약되어 있다는 점과 사건의 기술이 끝난 지점에서 축소된 분

8) 최남선 편, 『삼국유사』, 54~55면.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2 16:20(KST)

량과 비슷한 정도로 대보름의 풍속을 확대·서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삼국유사』의 서술 태도와는 다른 서술 태도로 <사금갑> 이야기를 기록하였음을 의미한다.

> 신라왕이 정월 십오일에 天泉亭에 거동하였더니 까마귀가 은으로 만든 함을 왕 앞에 물어다 놓았는데 함 속에는 글이 쓰여 있으되 단단히 봉해져 있었고 … (新羅王於正月十五日幸天泉亭 有烏啣銀椌置于王前 椌裡有書 封之甚固 …)[9]

新羅 21대 비처왕 즉위 십년의 사건이라고 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처럼 <사금갑> 이야기를 서술한 『삼국유사』와 달리 누가, 언제, 어디서 있었던 사건인가에 대한 기록은 모두 생략된다. 一然이 註를 붙여서라도 誤謬를 바로잡고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인물과 시대, 장소를 밝히고자 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신라왕 때의 일이라고만 막연하게 서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삼국유사』에서와 같은 神異한 사건의 기술도 거의 사라지고 만다. 까마귀와 쥐가 벌인 神異한 행위가 길게 서술되면서 쥐와 까마귀의 변괴에 인연하여 편지를 얻게 된다는 『삼국유사』의 내용과는 대조적으로, 까마귀가 처음부터 銀盒을 왕 앞에 물어다 두었다라고 간략하게 서술될 따름이다.

그런데도 『삼국유사』에서는 밝히지 않았던 정월 십오일이란 날짜만은 유독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까마귀와 정월 십오일이 지닌 의미만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까마귀와 정월 십오일이란 날짜를 유달리 강조하는 것은 『용재총화』의 <사금갑> 이야기에서 민간 풍속의 유래와 실상을 설명하고자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용재총화』 후반부의 서술이 확대되는 것과도 관련된다.

---

9) 『국역 대동야승』 I, 574면.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2 16:20(KST)

> 왕은 까마귀의 은혜를 생각하여 해마다 이 날에는 香飯을 만들어 까마귀를 먹였는데, 지금까지도 이를 지켜 명일의 아름다운 음식으로 삼고 있다. 그 만드는 법은 찹쌀을 쪄서 밥을 짓고 곶감·마른 밤·대추·마른 고사리·烏足茸을 가늘게 썰어서 맑은 꿀과 맑은 장을 섞어 다시 찐 다음 다시 잣과 호도 열매를 넣어 만드는데 그 맛이 매우 좋아 약밥이라 한다. 俗言에는 "약밥은 까마귀가 일어나기 전에 먹어야 한다" 하였으니 대체로 천천정의 고사에서 연유한 것이다. (王感烏之恩 每年是日 作香飯飼烏至今遵之 以爲名日美饌 其法洗蒸粘米作飯 細切乾柿熟栗大棗乾蕨烏足茸等物 和淸蜜淸醬而再蒸之 又點松子胡桃之實 其味甚甛 謂之藥飯 俗言藥飯當於鴉未起之時 盖因天泉之事也.)[10]

『용재총화』의 후반부 서술은 전반부의 축약·서술과는 대조적이다 할만큼 확대되어 있다. 이런 확대는 전적으로 약밥의 유래나 약밥에 들어가는 각종 재료에 대한 소개, 약밥을 만드는 방법의 상세한 소개, 그리고 그 맛이나 명칭, 약밥과 관련된 풍속에 관한 자세한 서술을 위한 것이다. 이 모든 내용은 간략한 사실 기록에 충실했던 『삼국유사』에서는 전혀 볼 수 없던 것들이다. 이런 기술 방식은 『용재총화』의 〈사금갑〉 이야기가 정월 대보름의 풍속을 설명하는 것으로 수재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월 십오일이란 날짜를 굳이 삽입하고 까마귀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후반부의 정월 대보름 풍속과 약밥의 유래에 대한 설명을 확대·서술한 것이다. 『용재총화』에 신이한 성격의 내용들이 상당 부분 거세되어 그 흔적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풍속을 위주로 한 서술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일연과는 다른 성현만의 독특한 사유방식, 서사에 대한 인식 태도의 변화가 內在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11]

『기문총화』는 『용재총화』와 酷似한 형태로 〈사금갑〉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서사 진행 방식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漢字도 『용재총화』의 〈사금갑〉 이야기의 경우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서술내용

10) 『국역 대동야승』 I, 574면.
11) 이는 다음 항에서 좀더 자세히 서술하기로 한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2 16:20(KST)

과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보이는 후반부와는 달리 전반부는 특히 혹사하다. 다음의 인용을 보기로 한다.

> 신라 紹智王이 정월 십오일에 天泉亭에 거동하였더니 까마귀가 은으로 만든 함을 왕 앞에 물어다 놓았는데 함 속에는 封書가 있으되 그 봉한 것이 매우 단단하였고 … (新羅紹智王正月十五日 幸天泉亭 有烏啣銀榼 置于王前 榼裡有封書 封之甚固…)[12]

외견상으로는 『용재총화』와 『기문총화』의 서술에서 特記할 만한 변화를 찾을 수 없다. 눈에 띄는 변화라면 겨우 紹智王이란 구체적 왕의 이름이 밝혀졌고, 天泉亭을 天泉寺로 표기하고 있으며, 은합 안에 '글[書]이 있었다'는 것을 '封書가 있었다'라고 기록한 점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유사한 것은 『기문총화』가 『용재총화』와 같은 前代의 筆記 類를 바탕으로 하여 서술한 것이기 때문이다.[13] 또한 이것은 『기문총화』가 『삼국유사』처럼 치밀하고 考證的 서술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문총화』에 수재된 <사금갑> 이야기의 후반부는 『용재총화』에 비하여 현격하게 축소되어 있어 주목된다.

> 왕은 까마귀의 은혜를 생각하여 해마다 이 날에는 香飯을 만들어 까마귀를

12) 정명기 편, 『기문총화』 권지일.

13) 실재로 『기문총화』 권4에 『용재총화』를 출전으로 밝힌 이야기가 7편이 존재하는데, <사금갑> 이야기 역시 『용재총화』의 기록을 수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또한 『기문총화』의 <사금갑> 이야기 뒤에는 歲時名日의 풍속 가운데 除夜의 풍속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용재총화』 역시 <사금갑> 이야기 다음에 歲時名日의 風俗 가운데 除夜의 풍속을 서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서술 순서와 내용의 유사함은 『기문총화』가 『용재총화』를 변이·수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기문총화』가 『용재총화』와 같은 전대 문헌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으며, 수용 양상에서 보이는 특징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서는 김준형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김준형, 「기문총화계 야담집의 문헌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2 16:20(KST)

> 먹였는데 세속에서는 약반이라 한다. 지금까지도 명일로 이를 지키고 있다. 俗言에는 약밥은 까마귀가 밀어나기 전에 먹어야 한다 하였느니 대체로 天泉의 일에서 연유한 것이다. (王感烏之恩. 是月是日 作香飯飼烏 俗謂之藥飯 至今遵之以名日 俗言食飯 當於烏未起之時 盖因天泉之事也.)[14]

『용재총화』에는 지루하다고 할 정도로 자세하게 약밥의 재료나 만드는 방법, 맛 등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 『기문총화』에서는 이런 상세한 서술이 완전히 삭제되고 풍속에 대한 간략한 기술만이 남아 있다. 이는 『기문총화』의 서술 태도가 『삼국유사』와는 말할 것도 없고, 『용재총화』와도 다른 수용 의식이나 서술태도를 지녔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기문총화』의 〈사금갑〉 이야기는 역사적 사건이란 서술이란 태도나, 풍속 자료를 기술한다는 태도를 지닌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삼국유사』처럼 치밀한 고증적 자세를 지니고 역사적 사건을 서술한 것도 아니고, 『용재총화』처럼 세시풍속의 모습을 포착하여 서술한 것도 아닌 정월 대보름의 유래와 관련되는 사건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서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기술하는 것처럼 〈사금갑〉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다.

이는 경주 지방의 역사, 풍속, 지리, 이문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동경잡기』와[15] 비교해 볼 때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우선 風俗篇의 내용을 먼저 보기로 하자.

> 신라 소지왕이 이미 금갑의 화를 면한 뒤에, 나라 사람들이 까마귀, 쥐, 용마, 멧돼지의 공이 아니었다면 곧 왕이 죽었을 것이라 여겨 마침내 정월 첫 쥐

14) 정명기 편, 『기문총화』 권지일.

15) 〈사금갑〉 이야기는 『동경잡기』 외에도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京都雜志』 등에도 수록되어 있으나 모두가 『동경잡기』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들의 문헌에 보이는 각편의 서술 내용이나 태도 역시 『동경잡기』의 것을 축약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동경잡기』만을 고찰의 대상으로 삼았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2 16:20(KST)

날, 첫 용날, 첫 말날, 첫 돼지날에는 백사를 삼가고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서 삼가는 날이라 하였다. 속언으로 怛忉라고 하는 것은 슬프고 근심스러워 금기한다는 뜻이다. 또한 16일을 烏忌日이라 하여 약밥으로 제사를 지내니, 나라 풍속에 지금까지도 그러하다. (新羅炤智王旣免琴匣之禍 國人以爲若非烏鼠龍馬豬之功 則王之身戚矣 遂以正月上子上辰上午上亥等日 忌愼百事 不敢動作 以爲愼日 俚言怛忉 言悲愁而禁忌也 又以十六日爲烏忌之日 以糯飯祭之 國俗至今猶然)[16]

『동경잡기』 풍속편의 기술은 전적으로 풍속을 설명하기 위한 기술이다. 때문에 炤智王이 죽을 뻔했던 이야기는 기술할 필요가 없어진다. 마찬가지로 편지를 얻게 된 경위나, 신이한 사건 자체도 별다른 주목거리가 안 된다. 오직 정월의 풍속인 上子·上午·上辰·上亥日의 풍속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서술 방식은 소지왕의 어떤 신이한 일을 겪었는가나, 까마귀와 쥐 등이 어떤 공을 세웠는가는 그리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 날에 어떤 풍속을 행하고 있으며, 이런 풍속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설명할 따름이다. 충분히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사적 골격은 모두 생략한 채, 풍속에 관한 설명만 남겨둔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동경잡기』에서 <사금갑> 이야기를 수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書出池의 유래와 관련된 경우에는 이와 확연하게 다르다. 오히려 『삼국유사』의 <사금갑> 이야기와 酷似하다.

新羅 炤智王 10년(488년) 정월 십오일에 왕은 天泉亭으로 행차하였다. 까마귀와 쥐가 이상한 행위를 하여 왕이 이에 기사로 하여금 까마귀를 쫓게 하였다. 남쪽으로 피촌에 이르자 두 마리의 멧돼지가 싸우고 있는 것을 머물러 보다가 그만 까마귀의 행방을 잃어 버렸다. 이 때 한 노인이 못 속에서 나타나 편지를 바쳤다. … 두 사람은 죽임을 당했다. 그 못은 書出池라고 했다. (新羅

16) 『동경잡기』, 풍속편.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2 16:20(KST)

炤智王十年正月十五日 王幸天泉亭 有烏鼠之異 王令騎士追烏 南至避村 兩猪相鬪 留連見之 忽失烏所在 時有老翁 自池中出奉書. … 二人伏誅 名其池曰 書出池.)[17]

書出池란 古蹟의 유래가 어떠한지를 기록하고 있는 『동경잡기』 古蹟篇의 내용은 『삼국유사』의 내용을 轉載하면서 부분적으로 몇 글자만을 바꾼 것처럼 보인다. 특히 『삼국유사』에서 볼 수 있었던 세밀하고 꼼꼼한 주석과 까마귀와 쥐의 이상한 행위에 대한 서술의 생략 및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의 상세한 정도 등에서 부분적인 차이가 보일 따름이다. 그러나 정월 십오일의 풍속을 설명하는 내용, 약밥이나 禁忌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완전히 생략되어 風俗篇과 퍽 대조적이다. 이것은 『동경잡기』 古蹟篇의 기록이 역사적 사건으로 〈사금갑〉 이야기를 수용한 것도, 풍속과 관련한 기록도 아님을 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꼼꼼한 주석을 붙여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도 없었던 것이고, 정월 대보름의 풍속을 서술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사금갑〉 이야기는 위의 모든 경우와 다르다. 물론 서사적 골격이나 내용의 서술이 『삼국유사』의 것과 酷似한 각편도 있지만,[18] 세부적 사건이나 사실을 진술하는 태도는 문헌에 정착되어 전하는 이야기와 判異하다. 구연자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진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전체적인 서사 진행의 합리성이나 역사적 사실의 전달 여부에는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그전 고구려 시대 어느 왕이 참, 이 농촌에 시찰을, 지금으로 말허자면 시찰

17) 『東京雜記』 古蹟.

18) 변은섭(남, 73)에 의해 구연된 〈까마귀밥의 유래〉의 경우 역사적 시간과 공간, 약밥을 만드는 방식 등이 缺落되었지만, 서사 진행은 『삼국유사』 내용과 거의 일치하여, 『삼국유사』를 읽은 경험을 토대로 구연한 각편이라고 생각된다(최래옥, 『한국구비문학대계(전남편)』 6-8, 〈까마귀밥의 유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321~323면).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2 16:20(KST)

이나 한가집니다. 나와서 신하를 멫을 데리고 참 어느어느 산골짝을 가는데, 가그매간치(까막까치)가 꽉꽉 그 가는 질을 앞으서 울고 있다 이거여. 하, 그런데 왕이 있다가, 먼춰라. 이거 질이, 질 앞으 신작로 앞으 가서 가그매(까마귀)가 울고 있으니 묘헌 일이다. 멈춰라. … 못이 있는디 못에서 사람 하나가 빠져가지고 모가지만 들어갔다 나왔다 그 이렇게 허드라, 이거여 왕이 치다본게. 근게 그 임금이 있다가 신하를 부름서, 너 저그 좀 갔다 와바라. 저 연못에 가면, 느덜 눈에는 안 뵈나? 내는 뵌게 사람 빠졌으니 금방 죽는다. 올라갔다 앉았다 헌게 어서 가봐라, 가서 그 사람을 구해라. 신하가 참 그말을 듣고서나 바로 그 못가에 갔어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램이 빠져 가지고 모가지만 폭 들어갔다 나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 짓을 허드라 이거여. 그런게 신하가 인자 벗을 여가도 없고 사람니 죽게 생겼은게 그냥 옷 입은 그대로 막 그 못가를 들어갔시오. 그 사람을 구헐라고, 들어가 본게 인자 모가지가 쏙 빠지고 손만 이러고(양손을 쳐들어 보임.) 있어요 손만. 그 손이가 편지 한 장을 들고 있드라 이거요. 그서 인자 꽉 잡고 손을 잡고 이렇게 끄시내 빌란게 손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편지만 자기 주먹으가 쥐어 있드라 이거요.[19]

다소 장황하게 인용했지만, 구비문학으로 전승되는 <사금갑> 이야기 각편이 보일 수 있는 특징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된다. 인용한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타의 문헌 전승에서 볼 수 있는 서사의 기본적 골격만을 유지한 채, 세부적 사실은 극도로 변형된다.

못에서 노인이 나와 편지를 주는 書出池 관련 내용의 경우, 왕이 물에 빠져 죽을 것처럼 보이는 노인을 신하를 시켜 구한다는 내용으로 변화한다. 때문에 까마귀나 쥐, 맷돼지의 역할이 두드러지도 않으며, 서사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까마귀에게 감사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물에 빠진 노인의 움직임이나 정황을 긴박하고 세심하게 묘사함으로써 청자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의 행위에 대한 반복적이고 희극적인 묘사나, 이를 구하기에 여념이 없는 신하의 모습에 대한 묘사는 청자를 강하

19) 박순호, 『한국구비문학대계』 5-4, 1077~1078면.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2 16:20(KST)

게 붙들어 맨다. 이외에도 편지를 둘러싸고 정승들이 벌이는 甲論乙駁의 논의 등은 현장성과 흥미성이 극대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20]

이런 점은 구연자나 청자에게 있어 〈사금갑〉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하는 점이 관심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구연자는 〈사금갑〉 이야기가 고구려 어느 왕 때의 일이라고 하기도 했고,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것도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모른디"라고도 한다. 구연자에게는 거짓이건 참말이건 아무런 상관도 없고, 오직 재미있는 이야기만 전달하여 청중의 시선을 붙들어 둘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태도를 취한다. 그렇기에 실재 역사나 〈사금갑〉 이야기에서 지극히 어질고 합리적인 왕으로 묘사되던 소지왕이[21] 합리적 판단 태도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된다. 권위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기적인 모습으로, 혹은 웃음의 대상으로 비춰지기도 한다.[22] 이것은 또한 오곡밥의 유래와 관련된 이

20) "내가 아무디 아무디를 갈라고 혔는디 가그매간치가 있어서 이런이런 꼴이 있으니 이 편지를 받었는디 다 해석혀서 내놔라." 그렀어 근게 우의정이나 좌의정이나 다 한 패는, "뜯어보먼 두 사램이 죽고 안뜯어보먼 한사람이 죽은게 사람 목숨이 귀헌게 뜯어 볼 것이 읍이 한 사람만 죽입시다." 그렀어 그 정승들이. 또 정승들 한 사람은, "그나지나 뜯어 봅시다. 한사람을 더 죽이더라도 목숨이 귀허지만 뜯어봅시다." 그 정승들이 있다가 서로 서로 이러쿵 저러쿵 허네, 그 수도 등등하고 뜯어보자커니 안 뜯어보자는 숫자가 등등혀요. 근게 임금이 있다가, "야, 내가 결정할테니 나 허잔대로 혀라." 그렀어. 임금이 결정을 뭐라고 내렸냐면, "이것 뜯어보얀다." 그서 그걸 그 자리서 뜯어봤어요.(『한국구비문학대계』 5-4, 1077~1078면).

21)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소지왕은 어려서부터 효행이 있고 겸손하였으므로 사람들은 모두 감복하였다(炤知幼有孝行 謙恭自守 人咸服之).'라고 기록되어 있고, 〈사금갑〉 이야기에서는 두 사람보다는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고 했을 만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인물로 묘사되고 있어 그 권위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22) 前註20)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임금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편지를 뜯어보자고 한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두 사람 죽는 것보다 낫다던 『삼국유사』의 기록과는 사뭇 다르다. 또한 임금은 나이 많았던 인물, 혹은 각시를 여럿 둔 인물로 묘사함으로써,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각시를 많이 두어 성적으로 그 많은 각시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음을 암시한다. "임금이 나이가 많았던 개벼. 그러고 임금쯤 되면 각시가 여럿이 많이 있을 거여."(『구비문학대계』 5-4, 1079면)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2 16:20(KST)

야기를 하면서도 오곡밥을 해먹는 정월 대보름의 풍속과도 그리 상관없다는 투를 취하는 구연자의 구연 태도에서도 알 수 있다.[23]

결국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존재하는 <사금갑> 이야기는 철저하게 흥미본위의 이야기로 변화하여, 서사의 골격이 다소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이것은 구연자가 청중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왕의 서술태도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삼국유사』는 <사금갑> 이야기가 신이하고 기괴한 사건이지만 그 자체를 최대한 정확하게 기술하고자 했고, 『용재총화』는 사건의 진술은 축약하여 그러나 대보름 풍속은 精緻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기문총화』는 사건 위주의 이야기 전달 방식으로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구비문학대계』는 사건의 진실성이나 세시풍속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고, 흥미위주의 사건 진술에 역점을 두면서 사건 자체도 어느 정도 변개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3. <사금갑>이야기 수용의 다층적 의미

서사물을 어떤 관점에서 그리고 무엇을 목적으로 서술하느냐에 따라 서술 방식을 큰 변화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금갑> 이야기를 收載하고 있는 이들은 어떤 관점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서술하였는가. 그리고 각편에서 보이는 變改는 전적으로 서술태도의 차에 따른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 일정정도 서사물에 대한 시대적 인식의 변화가 내재한 것인가 등을 중심으로 하여 <사금갑> 이야기의 수용과 변개, 그리고 그런 변개가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23) 그랬어. 그려서 '보름날 오곡밥을 먹는 것이 원인이 거기가 있다' 소리를 내가 들었시오. 이것도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모른다. … (『한국구비문학대계』 5-4, 1080면)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2 16:20(KST)

일연은 『삼국유사』를 편찬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금갑〉 이야기를 수재하였는가 하는 점이 〈사금갑〉 이야기의 서술태도와 그 의미를 이해하는 關鍵이 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일연은 『삼국유사』를 편찬하면서 본문의 기록을 다른 기록과 견주어 보고, 그것을 긍정·확인 또는 부가적 서술을 함으로써[24]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일연의 이러한 태도는 〈사금갑〉 이야기와 같은 설화적 성격의 이야기를 실재했던 역사적 사건으로 인식했기[25] 때문에 가능했다. 그가 '遺事'란 제목을 붙인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 〈사금갑〉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많은 부대 설명이 필요하며, 언제 어디서 있었던 일인가를 기록하는데 세심한 정확성을 기하고자 했던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사금갑〉 이야기는 역사적 사건의 일부로 기록되어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처럼 역사적 사건으로써 〈사금갑〉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지닌 서사적·문학적 의미를 貶下할 필요는 없다. 〈사금갑〉 이야기는 여전히 문학적 敍事物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문제는 오히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실재 사건의 기록에 상징적이고 신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혹시 실재 사건으로서의 의미와는 별개로 서술자의 사유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한다. 즉 서사문학의 발전과정에 있어 사실적 수법의 발달이 아직은 완숙한 지경에 도달하지 못한 것임을[26] 드러냄과 동시에 작가가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 놀람과 경이를 지니고 바라보게[27] 되는 설화적 사유방식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요컨대 인문적 질서 안에서 벌어지는 왕의 암살과 같은 변괴는

24) 소재영, 「삼국유사에 비친 일연의 설화의식」, 『숭전어문학』 제3집, 숭실대 국어국문학회, 1974, 79면.
25) 이동환은 삼국유사를 '私撰的 野史'로 일종의 史書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삼국유사』의 성격을 적절히 지적한 것으로 생각된다(일연 저, 이동환 옮김, 『삼국유사』, 장락, 1995, 8면).
26) 박희병, 「전기소설의 장르 관습과 금오신화」, 『민족문학사연구』 제8호, 1995, 110면.
27)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04~124면.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2 16:20(KST)

항상 자연적 질서의 變異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고 방식이 <사금갑> 이야기를 수재함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되며, 그것이 『삼국유사』의 기록에도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왕의 암살과 같은 변괴가 까마귀와 쥐, 멧돼지의 변괴로 상징화·형상화된 것이다.

일연은 <사금갑> 이야기를 서술함에 있어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는 시각을 지녔기에 서두 부분의 치밀한 고증적 서술태도를 보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역사적 사실로 <사금갑> 이야기를 수재하고 있음에도 이것이 문학적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은 서사로서의 특징과 상징적이고 신이한 내용의 기술 때문이다. 이런 서술 태도는 서사를 표현함에 있어 여전히 설화적 사유방식에 견인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물론 이것이 당대적 의미를 갖느냐는 좀더 논의를 진행해야할 것이지만, 일연에게는 설화적 사유의 방식 즉 인문질서와 자연질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유의 방식이 여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는 일연이라는 작가가 보여줄 수 있는 수재자로서의 역할이나 嗜好도 일정정도 반영되었음도 분명하다.

成俔(1439~1504)이 지은 『용재총화』는 현실의 잡다한 관심거리에서부터 閭巷間의 稗說이나 사대부사이의 逸話, 詩話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용재총화』 권2에 수재된 <사금갑> 이야기는 『삼국유사』의 神異하고 象徵的인 사건 서술 태도에서 일정정도 벗어나 있다. 이것은, 근본적인 측면에서, 성현이 <사금갑> 이야기를 실재했던 역사라고 인식하지 않음에[28] 있다. 성현이 <사금갑> 이야기를 서술하는 태도는 민속관련 자료를 다루는 것과 같다. 실재했던 역사적 사건으로써의 의미보다는 민속학적 자료로써 가치가 있다는 전제하에 서술한 것이다. 그렇다면 성현이 이런 서술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은 일차적으로 성현 개인의 性向에

28) 앞서 살핀 것처럼 성현은 <사금갑> 이야기를 수재함에 있어 신라 어느 왕 때, 어느 곳에서 벌어진 사건인지조차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건으로 <사금갑>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2 16:20(KST)

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全的으로 개인적 성향 여부에 의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도 없다. 그것은 오히려 시대적 조류에 상당부분 견인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鮮初 관료 문인들은 使行을 통한 중국과의 접촉, 弘文館에서의 역대 필기와 패설류 서적의 탐독,[29] 그리고 관직 생활에서 얻은 당대 사회 현실에 대한 聞見 등 자신들의 신분적 이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다양한 문학적 소재를 얻고자 했을 것이다. 이것은 詞章의 입장에서 經術을 아우르고자 했던[30] 문학관을 지닌 선초 문인들의 경우 문장을 과시하기 위해 詩話나 잡다한 이야기를 많이 알아야 했을 것과도 관련된다. 이것은 또한 博學主義나 經世的 敎訓 등과 통하는 그들의 時事에 대한 관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객관적 사물에 대한 예리한 관찰을 통해 민간에 유행하는 俗言古談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경험적 현실의 다양한 모습을 그들의 雜錄에 담아냈던[31] 것이다.

성현이 〈사금갑〉 이야기를 『용재총화』에 수록하면서도 사건 자체의 전개 양상에는 오히려 관심이 적고, 민속학적 자료나 세시풍속의 양상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이것은 〈사금갑〉 이야기를 당대 사회에서 벌어지는 민속적 현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기록하고자 했던 때문이다. 즉, 성현과 같은 鮮初 文人들은 항상 자신들 권력의 존립 기반이 되는 현실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32] 이런 관심의 표현으로 〈사금갑〉 이야기가 수용된 것이다. 때문에 성현이 서술하는 〈사금갑〉 이야기는 상징적이고 신이한 측면이 거세된 채 현실적인 성격이 강화되어 서술된 것이다.

---

29) 강재철, 「성종조 패관소설의 융성동인 연구」, 『한문학논집』 3집, 단국대 한문학회, 1985, 182면.

30) 김풍기, 「조선전기 문학론 연구-15세기 후반 문학론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115면.

31) 소인호, 「선초잡록의 성행과 전기소설의 변모」, 『고소설연구』 제1집, 한국고소설학회, 1995, 229면.

32) 소인호, 앞의 논문, 221면.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2 16:20(KST)

역사적 사실로서의 서사물이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博學의 資料로서 변모되면서 <사금갑> 이야기의 서술태도가 변화한 것이다.[33] 그러나 이런 변화가 곧바로 서사적 문학적 퇴보라고 할 수는 없다. 다양한 현실 세계의 관심거리를 합리적·현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서사의 발전 양상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런 筆記類의 융성은 후대 야담 문학이나 서사문학 전반에 폭넓게 수용·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특히 후대의 이야기 문학에 풍부한 소재를 제공함으로써 소재적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문총화』는 언제 누가 지은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조선후기 야담집이다. 다만 『溪西雜錄』을 중심으로 하고 『公私見聞錄』, 『梅翁閑錄』과 같은 각종 전대의 문헌을 텍스트로 일부 삼아 이야기를 加減하여 이루어 놓은 것이라고 추정하고[34] 있을 뿐이다. 특히 <사금갑> 이야기가 수록된 『기문총화』 권1에는 183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 대부분이 전대의 필기류이다. 때문에 앞서 지적한 것처럼 <사금갑> 이야기도 『용재총화』와 같은 전대의 필기류에서 영향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35] 그러나 그

33) 이같은 점은 성현이 『용재총화』에 담고 있는 내용의 전체적인 윤곽을 그리고 있는 黃俔의 발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총화 두 권을 가지고 나에게 출판하기를 위촉하여 내가 업을 마쳤는데, 무릇 우리 나라 문장의 세대에 따른 고하와 도읍의 @@ 풍속이 @@@@@와 조정과 민간의 기쁘고 놀랍고 즐겁고 슬프고 …… 견문의 넉넉함과 학식의 넓음은 다른 문필에 종사하는 사람이 붓을 들어 서화를 그리거나 쓰는 것에 견줄 바가 아니다(手携叢話二秩 囑余鋟梓 余受而卒業業 則凡我國文章世代之高下 都邑風@@ 俗尙之@@@ 祝書畵諸技 朝野間喜愕娛悲 …… 見聞之富 學識之博 而非他操觚弄翰者比也. 『慵齋叢話』 跋).

34) 김준형, 앞의 논문, 29~33면.

35) 김정숙의 경우, 조선후기 야담을 필기라는 명칭으로 아우를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필기에서 보이는 작가의 의식이나 서술 태도와 야담을 편찬하는 작가의 의식 혹은 서술 태도가 과연 같은 맥락에 놓이는가라는 점에 있어서 필자는 극히 부정적이다. 서술 태도가 달랐음은 필기와 야담이 같은 갈래적 폐쇄성을 지닌 것이라고 파악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양자는 각기 다른 갈래임을 인식해야만 상이한 서술태도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는 갈래론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이에 대한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2 16:20(KST)

서술 태도는 『용재총화』와 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기문총화』에 수록된 〈사금갑〉 이야기는 역사적 사건이란 측면이나 민속의 자료의 측면에서 수재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삼국유사』처럼 치밀한 고증적 자세를 지니고 역사적 사건을 서술한 것도 아니고, 『용재총화』처럼 세시풍속의 모습을 포착하여 서술한 것도 아니며, 하나의 간단한 사건을 이야깃거리로 인식하여 기록한 것일 따름이다.

야담은 조선후기에 발달한 다층적인 성격을 가진 서사 갈래라고 할 수 있다. 야담집 가운데는 설화, 詩話를 비롯해서 소설에 가까운 서사물이 공존하고 있는 그야말로 이야기 문학의 集合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야담의 등장은 사회 제반에 걸친 변동과 함께 등장한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이야기꾼의 등장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36] 물론, 반드시 이야기꾼의 증가만을 야담 갈래 형성의 동인으로 꼽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꾼의 등장은 곧 서사문학의 발달을 가늠할 수 있게 하고, 야담집이 유행할 수 있었던 존립의 근거를 설명해준다. 즉 야담집이 유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야기문학이 발달해서이고, 이처럼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야기를 바탕으로,[37] 혹은 전대의 문헌을 바탕으로[38] 야담집이 편찬되었던 것

구체적 논의는 생략하도록 하겠다(김정숙, 「몽유야담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7, 78면).

36) 임형택, 「18·9세기 이야기꾼과 소설의 발달」, 『고전문학을 찾아서』, 문학과지성사, 1976.

37) 누워 평소에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던 것을 생각하여 집안의 사적으로부터 앞 선배의 이야기와 세상에 유행하는 古談에 이르기까지 생각나는대로 기록하였다(故仍臥念平日之所耳聞 而目睹者 自家間事蹟 及外他前輩 行于世之古談 隨思隨錄)(李羲平, 『溪西雜錄』 序).

38) 사실을 모아 기록하여 불경한 탄식이 없으니 야승에서 기록하지 못한 바를 보충하고 있다. 고담 중에서 두루 아는 바를 배척하였고 위로는 목은 선생에서 아래로는 근세의 여러 선비들에 이르기까지 작은 사건이나 말 한 마디의 기이한 것들 중에 후세에까지 전할만한 것이 있으면 갖추어 싣지 않은 것이 없다.(摭實記述 無不經之歎 補野乘之所不載 斥古談之所共知 上自牧隱先公 下至近世諸公 苟有一事一言之奇 可以傳後者無不錄焉.)(沈能淑, 〈溪西雜錄 序〉, 『後吾知可』 卷5).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2 16:20(KST)

이다.

『기문총화』에 수록된 <사금갑> 이야기 역시 이런 이야기 문학의 융성과 관련을 맺으며, 수재된 것이다. 전대의 필기의 전통을 어느 정도 잇고 있으면서도, 필기류에서 장황하게 설명하던 약밥의 재료나 과정을 삭제하였던 것은 이를 하나의 이야기 문학으로 서술하고자 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이런 서술태도로 인해서 『삼국유사』나 『용재총화』에 나타난 <사금갑> 이야기와 다른 양상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즉 <사금갑> 이야기를 완전한 이야기로 수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비슷하게 하나의 이야깃거리로 수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 지방의 인문지리적 면모에 주목하여 서술하고 있는 『동경잡기』와는 확연하게 구분된다. 『기문총화』는 최대한 서사적 골격을 완전하게 갖추어 서술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정월 풍속이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최대한 간략하게 서술한다. 반면, 『동경잡기』는 서사적 내용은 최소화한 채 풍속이나 금기에 대한 서술을 위주로 하거나, 書出池의 유래와 관련된 사건만을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동일한 각편을 어떤 갈래적 범주로 귀속시키고자 하는가 라는 갈래 속성에 대한 인식이나 각편을 어떤 방식으로 서술하고자 하는가 라는 서술 태도에 대한 상이한 인식과 관련된 차이이다. 즉 각편을 바라보는 상이한 관점과 인식이 대상의 서술방식과 내용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런 양상을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가 바로 『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사금갑> 이야기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사금갑> 이야기는 이야기 문학의 가장 정점에 서는 바, 이것은 구술태도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즉 가장 기본적인 서사의 골격만을 유지한 채, 구체적 내용은 즉흥적이고 흥미있는 구연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용하는 태도는, 모든 것이 이야기의 흥미성에 이끌리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서사물이 가장 폭넓게 변화·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이 구비 서사물인 바, <사금갑> 이야기가 이런 변화의 가능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2 16:20(KST)

4. 맺는말

이미 언급한 것처럼 각편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의미를 고찰하는 것은 자료적 한계성으로 인하여 공허한 논의에 그치기 쉽다. 그러나 한 서사물의 변이 과정을 통시적 관점에서 살핌으로써 서사물의 수용 방식이 보이는 변화와 그 의미를 살필 수도 있다. 본고는 이런 목적으로 〈사금갑〉 이야기의 수용양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살핀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남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맺는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삼국유사』에 나타난 〈사금갑〉 이야기는 실재했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태도로 서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경험의 법칙성과 어긋나는 신이하고 상징적인 내용을 주저없이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일연이라는 특수한 개인의 의식 세계와 상관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시대가 서사문학의 발전과정에 있어 사실적 수법의 발달이 미숙한 단계이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인문적 질서와 자연적 질서가 필연적 상관성을 맺고 있으며, 자연적 질서의 변괴는 인문적 질서의 변괴를 예고하거나 동반한다는 사고방식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용재총화』에 수재된 〈사금갑〉 이야기는 현실적 서술 태도를 보인다. 이는 〈사금갑〉 이야기를 하나의 서사물로써보다는 세시풍속을 설명하는 보조적 자료로서 서술하려는 태도와 관련된다. 이런 서술태도로 인하여 『삼국유사』에서 보이던 상징적이고 신이한 내용은 사라지고, 오히려 약밥의 명칭, 유래, 만드는 방법, 맛 등이 자세히 서술되는 특징을 보인다. 『용재총화』를 집필한 성현이 이런 서술태도는 선초 문인들의 박학주의적 문학관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주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앎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인문적 질서와 자연적 질서의 통합적 인식보다는 자연적 질서의 양상을 하나하나 파악해가고자 하는 태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런 서술태도에 기반한 선초의 기록물들은 후대의 서사물이나 야담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2 16:20(KST)

그 구체적 예가 『기문총화』에 수재된 <사금갑> 이야기라고 할 수있다. 『기문총화』는 『용재총화』와 같은 전대의 문헌을 수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재총화』의 <사금갑> 이야기를 아무런 비판없이 받아들이는 것만은 아니다. 『기문총화』의 <사금갑> 이야기는 하나의 完定된 이야기로서 의미를 가진다. 박학의 재료도 아니고, 역사의 기록물도 아닌 이야기 자체가 된다. 이것은 조선후기에 발달한 서사문학 전반의 특징과 관련을 맺는다고 할 수 있다. 『기문총화』의 이같은 특징은 『동경잡기』나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사금갑> 이야기와 비교했을 때 더욱 분명해진다. 『동경잡기』의 <사금갑> 이야기는 전적으로 인문 지리적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어, 풍속과 관련된 내용만을 취하거나 유래와 관려된 내용만을 일방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구비문학대계』에는 아주 기본적 서사의 골격만을 유지한 채, 구체적 내용은 큰 폭으로 변화한다. 내용의 세세한 국면이 현장감 있고 흥미 있는 내용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수용과 변이의 양상을 보이는 <사금갑> 이야기는 서술태도의 변화, 동일 서사물 각편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서사물을 대하는 동시대적 관점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2 16:20(KST)